

S-Oil · SK 주가하락률 상위수준

증권거래소, S-Oil 최대 ... 시가총액 상위기업 주가 크게 부진

2002년 들어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의 주가하락률이 시장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2년 들어 7월29일까지 시가총액 상위 60사(관리종목·우선주 제외)의 주가흐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주가하락률이 8.12%를 나타냈다. 종합주가지수 하락률 3.39%에 비해 주가가 훨씬 많이 떨어진 것으로 종합주가지수는 1월2일 724.95p에서 700.35p로 낮아졌다.

시가총액 상위 60사 중 주가가 내린 종목은 42개, 오른 종목은 18개(30%)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20.48%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컸고 S-Oil(-16.83%), 삼성전기(-16.24%), 롯데제과(-14.65%), LG전자(-14.23%), SK텔레콤(-13.58%), SK(-13.17%), POSCO(-13.3%), 현대자동차(-12.73%), SK글로벌(-12.40%)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가 상승률은 하이닉스반도체가 72.88%로 가장 높았고 LG석유화학(29.29%), 대림산업(15.04%), 대한항공(9.09%), 부산은행(7.95%), 제일제당(7.52%), 대우증권(5.91%), 담배인삼공사(5.77%), 한국가스공사(5.23%), LG투자증권(3.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주요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의 주가 하락률이 시장평균 보다 높았던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4조2500억원 상당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조100억원, 개인은 2조2400억원 상당을 순매수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8/ 12 >